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과정 분석*

은혜경(殷惠瓊)**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원격대학에 입학한 이주민 학생들의 학업적응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 원격대학에 입학한 후 글로벌장학금을 받은 우수 이주민 학생 9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근거 이론 접근(grounded theory approach)에 따라 면접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개방코딩(open coding)을 실시하여 총 28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범주들(categories)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축코딩(axial coding)을 진행하여 원격대학에 입학한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즉, 원격대학에 입학한 이주민 학생들이 학업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현상(phenomenon)은 ‘원격대학생활의 어려움에 압도됨’으로 나타났으며, 중심현상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s)은 ‘대학교육을 받기에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함’, ‘한국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ies)은 ‘포기할까 고민함’, ‘각오를 다짐’, ‘현실과 타협함’,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함’, ‘교내 학습지원 제도를 활용함’,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함’, ‘정보를 탐색함’, ‘시험위주로 공부함’, ‘공부에 몰입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업적응 결과(consequences)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됨’,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함’, ‘원격대학 학습법을 터득하고 전수함’, ‘한국사회 적응력이 향상됨’, ‘이주민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함’ 등이었으며, 학업적응 과정은 혼란, 탐색, 적응초기, 몰입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원격대학 이주민 학생의 학업적응 관련 이론과 실제에 주는 시사점,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등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원격대학, 다문화 이주민, 학업적응,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 과정 분석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책개발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o. 정책과제 12-21) 보고서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I. 서론

학업적응이란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학업적 요구와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박범혁, 2006; 조한익, 이성원, 2013). 학업적응은 단순히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적 목표와 요구에 대한 태도, 학업적 과제나 작업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능력, 효과적이거나 충분한 학업적 노력, 학습환경과 관련된 만족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Baker & Siryk, 1984). 특히, 대학생의 학업적응은 사회적, 정서적 적응과 함께 대학생활 적응의 주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전향신, 2018).

원격대학에 재학하는 성인대학생들에게도 학업적응은 매우 중요하다. 컴퓨터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원거리 학습을, 그것도 '혼자서' 진행해야하는 원격대학 재학생들은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연령대가 높아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에 서투를 수 있으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병행하느라 학업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대학과는 달리 교수자의 즉각적 피드백이나 강화 없이 공부해야하고, 동료 학생들과도 충분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소속감 부재나 고립감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원격대학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성인대학생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국내 한 원격대학의 졸업 및 중도탈락에 관한 남신동, 정영숙, 황지원, 정연희(2013)의 연구를 살펴보면, 2008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입생 중 수업연한 이내에 정규 졸업한 학생 수는 전체의 16.2%에 지나지 않으며, 2013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들의 65.0%는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외 원격대학이나 국외 대학의 원격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탈락률은 70~8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wkrige, 2003; Truluck, 2007).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이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이주민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다문화이주민이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재외동포 등과 같이 출생국가나 민족은 다르지만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말한다. 행정안전부(2007, 2017)에 따르면, 2007년 722,686명이던 국내 외국인주민 수는 10년 동안 10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16년에는 전체 인구의 3.4%인 1,764,664명까지 늘어났다. 이들 중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유학생 수도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3,963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에는 123,858명으로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1, 2017).

이에 따라 국내 원격대학에도 이주민 재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K 원격대학의 경우,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명에 불과하던 외국국적소지 이주민 입학생 수는, 2005년 이후 점차 늘

어나 2013년에는 331명까지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150명의 외국국적소지 학생이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은혜경, 2018; 정혜령, 노일경, 양창렬, 2011). K 원격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학 정보공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현재, K 원격대학의 외국국적소지 재학생 수는 총 22개국 629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국적을 변경한 귀화자가 제외된 것을 고려할 때, 이보다 더 많은 이주민 학생들이 K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국내 이주민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학업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근 이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김미강, 2018; 김애진, 정원철, 2011; 김현진, 김영주, 2014; 서선자, 금명자, 2012; 최은희, 조영아, 2014).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교나 일반대학 혹은, 대학원으로 진학한 외국인유학생,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청소년 등의 학업적응에 관한 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원격대학으로 진학한 이주민은 중·고등학교나 일반대학의 이주민 학생들과는 달리, 30~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기혼자이면서 직업인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은혜경, 정혜령, 2012). 특히, 원격대학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학업적응 과정 또한 중·고등학교나 일반대학에서의 학업적응 과정과는 차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국내 원격·사이버 대학으로 진학한 이주민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시한 바 있으나(김현아, 2010; 은혜경, 2013), 이들의 학업적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접근(grounded theory approach)을 사용하여 원격대학 이주민 학생들의 학업적응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근거이론 접근은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관련 변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이론이 구체화 되지 않은 분야의 현상을 연구할 때 사용 가능하다(박승민, 김광수, 방기연, 오영희, 양은미, 2012). 근거이론 접근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원자료(raw data)에서 개념을 발견하고 이를 범주화한 다음, '패러다임(paradigm)'이라는 분석도구 혹은, 관점을 사용하여 하위 범주 및 범주들 간 관계를 연결 짓게 된다. 이 때,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범주에 해당하는 하위범주들 간의 관계를, 맥락과 조건들을 고려한 순차적 변화로 연결하는 것을 과정분석이라 한다(박승민 외, 2012; Strauss & Corbin,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원격대학 이주민 학생들의 학업적응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원격대학 이주민 학생들의 학업적응 과정을 분석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원격대학 이주민 학생들의 학업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패러다임은 어떠한가?

둘째,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과정은 어떠한가?

II. 선행 연구

1. 대학 진학 이주민 학생의 학업적응 어려움과 촉진 요인

국내 일부 연구(김현아, 2010; 은혜경, 2013)에서는 원격대학으로 진학한 이주민 재학생들이 학사일정과 원격·사이버 학업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며, 교과목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는 등 학업적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며, 오히려 원격대학과 동일한 고등교육기관인 일반대학 혹은, 대학원으로 진학한 외국인유학생의 학업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많은 편이다.

국내의 일반대학이나 대학원으로 진학한 외국인유학생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학위취득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획득과 계층이동,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문화에 대한 문화적 체험, 타문화로의 유학을 위한 중간경험, 인생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아성장 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국내 대학으로 입학하나(박성원, 신동일, 2014; 박은미, 황병의, 정태연, 2010; 이민경, 2012),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수업내용 이해, 수업 참여, 보고서 작성, 시험보기 등과 같은 기본적 학업수행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금해, 2009; 최은희, 조영아, 2014; 하정희, 2008).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언어장벽은 낮은 학업성취도와 낮은 자기평가로 이어져 이들의 학습의욕을 저하시키며(김영경, 2009), 교수자나 동료 학생과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을 떨어뜨려 학업과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든다(김대현, 김아영, 강이화, 2007). 유학생들은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국과는 다른 수업방식이나 경쟁적 학습분위기, 상하 위계가 분명하고 강요와 복종을 강조하는 교수 및 선후배와의 관계, 기대에 못 미치거나 부재한 학교의 학습지원제도(예. 튜터링 등) 등과 같은 대학 문화나 환경 등으로 인해서도 어려움을 겪으며(김지훈, 2013; 박세원, 2012; 정남조, 2010), 학비와 주거 및 생활비 조달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 출신국에 대한 한국인의 무시와 차별, 이로 인한 정서적, 대인관계적 어려움 등을 함께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우, 2009; 박은미 외, 2010; 전제은, 장나영, 2012).

국외 연구에서도 유학생들은 문화충격, 언어적 어려움과 의사소통 문제, 교육시스템과 학문적 분위기 차이, 고립감과 외로움, 향수병과 사회적 지지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Rice, 2007; Msengi, 2007; Roberts, Towell, & Weinreib, 1999). 연구자들은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언어적 장벽이 교수자나 동료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제한시켜 결국 학업적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Baratt & Huba, 1994; Chen, 1999; Poyrazli & Kavanaugh, 2006).

그렇다면 이주민 학생들의 학업적응과 관련되거나 학업적응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김현진과 김영주(2014), 서선자와 금명자(2012)의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전략과 자국

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학업성취도나 학업적응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최은희와 조영아(2014)는 유학생의 언어적 능력과 함께, 수업이나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수자나 동료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성격적 특성이 학업적응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Martirosyan, Hwang, 그리고 Wanjohi(2015)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언어 유창성과 구사가능 언어수가 학업성적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차별, 향수병 등이 유학생의 학업미루기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Lowinger, He, Lin, & Chang, 2014). 한편, Zhou, Frey, 그리고 Bang(2011)은 대학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개인적 변인 즉, 유학생의 언어적 기술과 문화역량, 학습동기와 태도 뿐 만 아니라, 교수나 동료 학생과의 관계, 가족의 관심,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조교 경험 등과 같은 집단 관련 변인이 유학생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었다.

2. 이주민 학생의 학업적응 과정

한편,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 들어온 이주민 학생들의 학업적응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Haggis, 2009; Quan, He, & Sloan, 2016에서 재인용). 관련된 일부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Major(2005)는 미국 Western 주립대학의 학부과정에 입학한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다음, 그들의 대학생활 적응 과정을 분석하였다. Major(2005)는 이주민 학생의 적응 과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입학한지 1개월 이내인 학생 5명과 입학한 지 2년 이상 된 학생 5명을 함께 인터뷰하였으며 그 결과, 아시아 출신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과정을 진입(Entry)단계, 불일치(Dissonance)단계, 적응(Adjustment)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였다. 고국에서 이미 민족적 정체성과 자아개념이 확립된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은 처음에는 수업에 참여하고 교육을 받고 미국 문화를 배우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일종의 “바깥 관찰자(outside observer)”로 있으려 하는 기대(Expectation) 단계 혹은, 진입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다 고국의 학교문화와 새로운 학교문화의 차이로 인한 “문화·교육 쇼크(culture and education shock)”, 이로 인한 부적절감과 소외감, 소진 등 다양한 수준의 정서적, 학업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불일치 단계를 경험하게 되며, 이후 적응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Major(2005)는 아시아 출신 학생들을 새로운 대학생활에 적응하게 만든 요인은 개인의 뚜렷한 학업 동기와 목표 설정, 그리고 직면하는 어려움이 개인적 역량부족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교육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재확인 등이었다고 분석하였다.

Quan 등(2016)은 영국 대학에 진학한 중국인 대학원생들의 학업적응 과정에 대한 모델을 제

시하였다. 연구자들은 20명의 중국인 대학원생들을 인터뷰 한 다음, 이들의 학업적응 과정을 과자신감(Overconfidence) 단계, 스트레스(Stress) 단계, 참여와 적응(Engagement and adoption) 단계, 학업적 역량 획득(Gaining academic competence) 단계 이렇게 4단계로 분석하였다. 먼저, 과자신감 단계는 영국에 도착하기 전 단계로, 영국에서의 학업수행에 대한 흥분과 자신감속에서 앞으로 직면하게 될 학업적 어려움에 대한 과소평가와 준비 부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스트레스 단계는 첫 학기 3~4주 정도에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양의 정보에 압도당하면서 어려운 학업 과제로 인한 학습 쇼크(learning shock)를 경험하게 되고, 학생들은 이로 인해 불확실감과 “어둠속으로 뛰어드는(leap into the dark)” 느낌을 갖게 된다. 세 번째, 첫 학기 3~4주 이후부터 2학기 초반까지 경험하게 되는 참여와 적응 단계에서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줄어들면서 학습 활동에 좀 더 익숙하게 되고 새로운 학습시스템과 학습기술에 적응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학기 중반부터 3학기까지 경험하게 되는 학업적 역량 획득 단계에서는 학습능력이 향상되면서 학업수행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새로운 학습시스템에 통합되어져 간다.

한편, 국내 연구 중에서도 대학에 진학한 이주민 학생의 학업적응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국외로 이주한 청소년 혹은 조기 유학생들의 학업적응 과정을 분석한 일부 연구들이 있는데(강희숙, 김동선, 문영주, 2010; 김현주, 유성경, 2008), 여기서는 원격대학에 입학한 이주민 학생처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에 관한 김애진과 정원철(2011)의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평균 2년 1개월 정도의 해외 체류경험이 있는 16세~19세 북한이탈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청소

<표 1>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이주민 학생들의 학업적응 과정

연구자(발표연도)	연구대상	총단계	학업적응 과정
Major (2005)	미국 Western 주립대학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아시아출신 유학생 10명	3단계	진입(Entry) 단계-불일치(Dissonance) 단계-적응(Adjustment) 단계
Quan, He, & Sloan (2016)	영국 북부지역 2개 대학으로 진학한 중국인 대학원생 20명	4단계	과자신감(Overconfidence) 단계-스트레스(Stress) 단계-참여와 적응(Engagement and adaptation) 단계-학업적 역량 획득(Gaining academic competence) 단계
김현주, 유성경 (2008)	조기유학 기간이 2년 이상 6년 미만인 13세에서 18세 한국 청소년 18명	5단계	압도됨 단계-거리됨 단계-깨달음 단계-다가감 단계-어울림 단계
강희숙, 김동선, 문영주 (2010)	조기유학 경험이 있는 청소년 20명과 학부모 5명	4단계	위축 단계-숙고 단계-시도 단계-자신감 회복 단계
김애진, 정원철 (2011)	국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9명	4단계	낯선 환경 진입 단계-위축 단계-대처 단계-적응 단계

년의 학교적응 과정을 낮선환경 진입단계, 위축단계, 대처단계, 적응단계, 이렇게 4단계로 분석하였다.

낮선환경 진입단계란 적응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위축단계는 북한 말투로 인해 말수가 줄고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확연히 다른 교과과정으로 인해 크게 당황하면서 북한 출신이라는 것에 열등감을 가지게 되지만, 어려움을 호소할 대상이 없어 더욱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대처단계는 친구와 부모님, 선생님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적응단계는 남한의 학교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학교생활에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임하게 되는 단계를 말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국내 대표 원격대학인 K대학에서 2012학년도 1, 2학기에 '글로벌장학금'을 받은 이주민 재학생 9명이다. 연구자는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을 선택하여(박승민 외, 2012),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과정에 대한 이론 형성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라고 판단되는 글로벌장학금 수혜자를 의도적으로 표집하였다. 글로벌장학금은 2007년부터 K대학 이주민(외국인 혹은, 귀화자) 재학생에게 매학기 지급되는 성적장학금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학점을 받은 이주민 재학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들 중 성적이 우수한 상위 100명에게 지급된다. K대 학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매학기 신청기간이 따로 공지되는 글로벌장학금 신청자는 성공적 원격대학 학습에 필요한 역량(홍성연, 2009) 즉, 학습동기, 매체활용능력, 정보수집능력 등이 높은 학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들 중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므로 글로벌장학금 수혜자는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과정에 대한 자료를 가장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K대학의 2012학년도 1, 2학기 글로벌장학금 수혜자는 모두 197명으로 이들의 평균 평점은 3.3점(4.5점 만점)이었으나, 이들 중 90.4%가 중어중문학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되도록 다양한 학과에 속한 사람들이 연구 참여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여학생이었으며, 중어중문학과에 속한 학생이 2명, 무역학과, 법학과, 영어영문학과, 일본학과, 청소년교육과, 교육학과, 관광학과에 속한 학생이 각 1명씩이었다. 1명

<표 2> 연구 참여자 특성

연 번	연구 참여자	소속 학과	학년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결혼 여부	출신 국가	국내 거주기간	거주 지역
1	A	무역	4	31	여	회사원	전문 대졸	미혼	중국	9년	서울
2	B	법	4	42	여	회사원	고졸	이혼	중국	13년	인천
3	C	영어 영문	4	35	여	주부	고졸	기혼	중국	7년	경기
4	D	중어 중문	2	31	여	주부	고졸	기혼	중국	8년	경기
5	E	일본	2	50	여	주부	고졸	기혼	일본	17년	경기
6	F	청소년 교육	2	39	여	주부	대학 중퇴	기혼	중국	10년	경기
7	G	중어 중문	4	39	여	회사원	전문 대졸	기혼	중국	6년	경기
8	H	교육	2	43	여	강사	전문 대졸	기혼	중국	12년	충청
9	I	관광	4	33	여	자영업	고졸	기혼	중국	9년	전라

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혼자였으나 기혼자 중 1명은 이혼한 상태였다. 또한, 일본출신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 출신이었으며, 거주지역은 경기 지역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인천, 충청, 전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각 1명씩이었다.

2. 연구과정

1) 자료수집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경험과 과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9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 1명이 각 연구 참여자를 직접 만나 1~2시간 정도 진행하였으며,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 질문은 연구자가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서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과정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주민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 1명에게 검토를 받았다. 질문은 “원격대학에 입학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원격대학에 입학한 후,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격대학 재학생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학업과정 중 경험한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원격대학에서의 학습과 공부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 사건이나 경험은 무엇입니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자는 사전 검토한 질문을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하되,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학업적응과 관련된 이야기를 최대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들로, 연구자는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전화와 이메일로 연구목적과 질문내용을 이들에게 안내하였다. 인터뷰는 사전약속을 통하여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나 근무지로 찾아가거나,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의 상담실로 찾아와 인터뷰에 응하는 면대면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인터뷰 자료를 보다 풍부히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과 전화를 통해 2차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고 녹취록으로 전사되었으며, 전사된 자료는 각 연구 참여자당 12페이지에서 29페이지 사이의 분량이었다.

2)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2001)이 말한 미시적 자료 조사를 통한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자는 원자료화 된 녹취록을 읽으면서 한 줄 씩 분석해 나갔으며, 연구자에게 의미있거나 흥미로운 단어나 구문, 문장에 줄을 긋고 그 옆 여백에 의미나 개념을 명명하는 방식으로 개방코딩(open coding)을 진행하였다(박승민 외, 2012). 또한, 발견되고 도출된 개념들의 의미가 비슷하다고 여겨지면 이를 하위범주로 묶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하위범주들 간 상관과 유사성을 바탕으로 다시 범주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축코딩(axial coding)을 실시하여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과정의 중심현상(phenomenon)이 되는 범주를 선택하고, 중심현상과 관련이 있거나 중심현상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코딩 범주를 분석하는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다(Creswell, 2010). 범주분석 결과는 중심현상의 조건과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패러다임(paradigm) 모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이후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으로 표현되는 범주와 하위범주들 간의 관계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추적하는 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박승민 외, 2011; Creswell, 2010).

3)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er(1985)가 제시한 4가지 방법 즉,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에 따라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 자료가 해석되고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연구자의 중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중립성은 사실적 가치, 적용가

능성, 일관성이 확보될 때 획득될 수 있다(박승민 외, 2012). 연구자는 본 연구결과의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과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관찰, 현장노트, 연구 참여자들이 기술한 글,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공운정과 이은주(2014), 김현주와 유성경(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어 실력이 가장 뛰어난 연구 참여자 2명에게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K 원격대학에서 글로벌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주민 졸업생 2명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 연구결과가 자신들의 경험에도 적용가능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근거이론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1명,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근거이론을 활용한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경험이 있는 2명에게 총 10회에 걸친 자문을 받고 개방코딩부터 축코딩에 이르는 자료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IV. 연구 결과

1.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패러다임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패러다임을 도출하기 위해 개방코딩과 지속적 비교를 통한 범주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73개의 하위범주와 28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한 범주를 다른 범주들과 연결시키고 그 연결을 도식화하는 축코딩을 진행하여 [그림 1]과 같은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범주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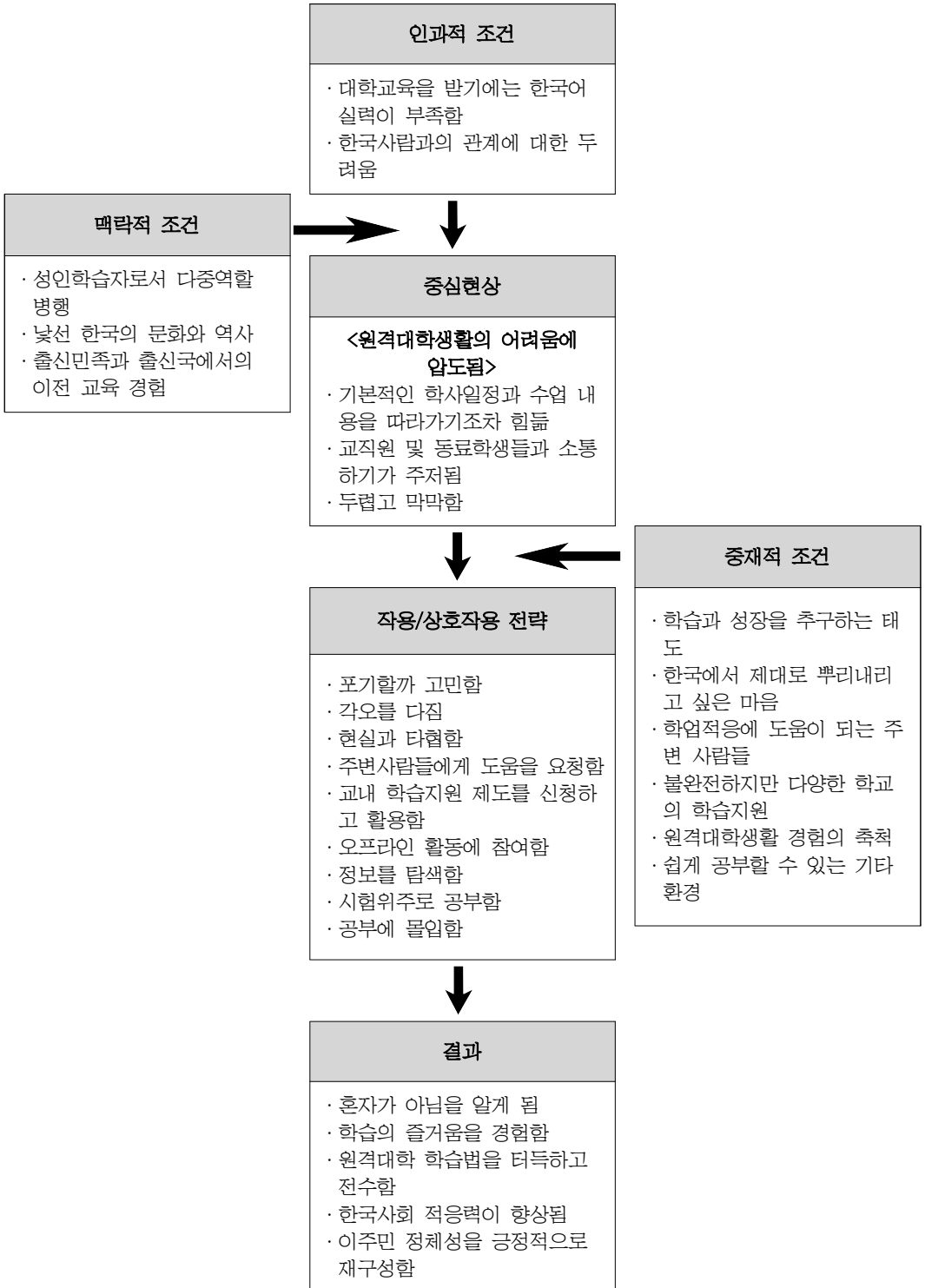
중심현상이라고도 불리는 현상(phenomenon)은 자료 내에 개념으로 제시되는 중심 생각으로,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는가?’와 관련된 것이다(박승민 외, 2012; Strauss & Corbin, 2001). 원격대학에 입학한 이주민 재학생이 학업적응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원격대학생활의 어려움에 압도됨’이었다.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들은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

<표 3>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과정 범주화 분석

구분	범주	하위범주
인과적 조건	대학교육을 받기에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함	- 한국어 사용이 전반적으로 서툰 - 고급 한국어 사용이 어려움
	한국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인식함 - 한국인의 무시와 배척에 대한 두려움
맥락적 조건	성인학습자로서 다중역할 병행	- 임신과 육아 때문에 시간을 못 냄 - 가정사와 가사일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려움 - 생계를 위해 직장 일을 병행하느라 지침
	낮선 한국의 문화와 역사	- 문화적 이질감을 느낌 - 한국역사를 모름
	출신민족과 출신국에서의 이전 교육경험	- 출신민족과 출신국 학교에서의 학습내용 -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
중심현상 <원격대학생활의 어려움에 압도됨>	기본적인 학사일정과 수업내용을 따라가기조차 힘들	- 강의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움 - 책읽기가 어려움 - 과제물 작성과 글쓰기가 어려움 - 학교 홈페이지 활용과 정보 찾기가 어려움 - 학사일정과 수강·등록 방법을 모름 - 학교의 공식적 학습지원 제도를 모름
	교직원 및 동료학생들과 소통하기가 주저됨	- 교직원에게 질문하기가 어려움 - 동료학생들과 어울릴 자신이 없음
	두렵고 막막함	- 한국어 학습 양과 수준에 놀라고 두려움 - 어떻게 공부할지 걱정되고 막막함
	학습과 성장을 추구하는 태도	- 지식을 추구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함 - 도전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태도
	한국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고 싶은 마음	- 한국인에 대한 신뢰와 사귀의 욕구 - 국내대학 졸업이 한국 정착에 도움이 됨 - 이주민임을 수용하고 한국을 알리고 노력함
중재적 조건	학업적응에 도움이 되는 주변사람들	- 원격대학 경험이 있는 가족과 지인 - 이주민에 호의적인 학생과 교직원 - 열심히 공부하고 어울리기 쉬운 주변학생
	불완전하지만 다양한 학교의 학습지원	-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함 - 이주민 학생 지원 정책이 별도로 있음 - 학교의 학습지원 제도에 실망함
	원격대학생활 경험의 축적	- 첫 학기가 지남 - 입학식과 O.T.에 참석함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타 환경	- 출신국 관련 전공과 어렵지 않은 교과목 - 컴퓨터 사용이 용이하고 빈번함

<표 3>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과정 범주화 분석(계속)

구분	범주	하위범주
작용/상호작용 전략	포기할까 고민함	- 포기하고 싶음
	각오를 다짐	- 계속하기로 결심함
		- 열심히하기로 결심함
	현실과 타협함	- 학업의 일시적 중단과 일부 과목 포기
		- 학습목표를 현실적 수준으로 낮춤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함	- 지인과 주변학우에게 물어봄
		- 학교 교직원에게 물어봄
	교내 학습지원 제도를 활용함	- 일반멘토링과 다문화멘토링을 신청함
		- 스터디와 튜터제를 활용함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함	- 학교 수업과 학생회 특강에 참여함
- 학교 행사와 학생회 활동에 참여함		
정보를 탐색함	- 학교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함	
	- 학보와 안내 책자를 참고함	
시험위주로 공부함	- 기출문제만 풀어봄	
	- 남이 만든 요약과 답안을 달달 외움	
공부에 몰입함	- 시험 전 벼락치기를 함	
	- 내게 맞는 학습스타일 대로 공부함	
	-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공부함	
	- 나만의 요약·정리 내용과 답안을 만들	
	- 연습과 선행학습을 함	
결과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됨	- 필기 전략과 암기 전략을 사용함
		- 이주민 재학생을 만나 위로 받음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함	- 한국인 재학생과의 우정을 경험함
		- 학업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김
		-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좋아짐
	원격대학 학습법을 터득하고 전수함	- 새로운 학습을 모색하고 시도함
		- 홈페이지 활용법과 과제물 작성법을 알게 됨
		- 요점 파악 방법과 시험준비 전략을 알게 됨
	한국사회 적응력이 향상됨	- 이주민 재학생에게 도움을 줌
		- 한국어 실력이 늘어남
-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이해하게 됨		
- 가족이 자랑스러워 함		
- 직업생활에 도움이 되고 사회에서 인정받음		
이주민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함	- 모국어와 모국문화에 대한 자부심	
	- 이중 언어자의 강점에 대한 인식	
	- 편견과 선입견에 흔들리지 않음	



[그림 1]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패러다임

요한 한국어 책 읽기, 한국어 강의 듣기와 내용 이해가 매우 어려웠으며, 특히 과제물 및 시험답안 작성 등과 같은 글쓰기에서도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 활용과 정보 찾기가 어려워 수강·등록과 같은 기본적인 학사일정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지원 제도를 몰라 이를 통한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다. 이들은 혼자서 한국어로 진행해야 하는 학습 양과 수준에 매우 놀라고 겁이 났으며, 두렵고 막막한 마음이 많이 들었을 뿐 아니라 교직원에게 질문하거나 동료학생들과 어울리는 것도 주저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책 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글자 몇 번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참여자 H)

글쓰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말하기보다, 책보는 것보다, 제일 어려운 것이 글쓰기예요. (참여자 D)

소식 같은 것, 정보 잘 몰랐었어요...(중략) 2학년 2학기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안 되어서 그게 등록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휴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참여자 B)

유창한 한국말 아니니까 상대 쪽에서 뭐라고 대답하면 잘 못 알아듣거나, 잘 못 알아들으면 다시 질문하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약간 무시하는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 때문에 (모르는 것 있어도) 학교에 전화를 못 했어요. (참여자 C)

제가 인터넷에서 공부를 하기도 전에 처음에 출석수업¹⁾을 들었는데 너무 한국어로 빨리빨리 진행하시니까 저는 공부 못 하겠다고 처음에,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참여자 E)

2)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변수들을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s)이라고 한다(박승민 외, 2012).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이 학업적응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중심현상 즉, '원격대학생활의 어려움에 압도됨'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은 '대학교육을 받기에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함', '한국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분석되었다.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들은 한국어 사용이 전반적으로 서툴거나 고급 한국어 사용이 어려웠으며,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선입견을 인식하고 있어, 한국인이 무시하거나 배척할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K 원격대학은 전국에 13개 지역대학과 32개 학습관을 갖추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blended learning system)을 추구하고 있음. 따라서 등록생들은 매학기 소속 지역대학이나 학습관에서 3일 정도 진행되는 출석수업을 신청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출석수업 종료 1주일 후에는 출석수업 시 학습한 내용을 범위로 필기시험을 치. 개인적인 사유로 출석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출석수업 대체시험을 신청하여 기말시험 1~2주 전 소속 지역대학 및 학습관에서 대체시험을 볼 수 있음.

제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한국어하고 다르잖아요. 생활에서 쓰는 한국어하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교과서 안에 있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급 한국어잖아요. 진짜 집중해서 들어도 반 정도는 이해할까말까, 그런 정도였어요. (참여자 E)

“중국에는 바퀴벌레도 먹대요?” 이런 얘기가 장난인데도 ‘나 보면 또 바퀴벌레 먹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나?’하고 마음을 닫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참여자 G)

내가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무시하지 않을까, 웃지 않을까, 못 하나까 일단. 어휘도 그렇고, 억양도 그렇고, 그리고 단어구사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사람 앞에서 한국말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고, 그게 마음에 병이 된 것 같아요. (참여자 H)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사회·문화적 배경 또는 맥락을 말한다(공운정, 이은주, 2014). ‘원격대학생활의 어려움에 압도됨’이라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과 맥락으로는 ‘성인학습자로서 다중역할 병행’, ‘낯선 한국의 문화와 역사’, ‘출신 민족과 출신국에서의 이전 교육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들은 가사와 육아, 생계를 위한 직장 일을 병행하느라 공부할 시간과 에너지를 내기가 어려웠으며,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고 한국역사를 모르는 맥락 속에 있어 원격대학에서의 공부가 더욱 어려웠다. 한국어 사용빈도가 높았던 조선족 출신은 학업에 적응하기가 보다 쉬웠으나, 조선족이라도 한족이 다니는 중국 학교에 다녔거나 조선족이 아닌 사람은 한국어가 서툴러 학습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역사나 세계사 같은 교과목은 한국의 원격대학에서 배우는 내용과 출신국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달라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 학습시스템이 익숙치 않아 당황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집에서 집안일 해야 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조용히 혼자 독서하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공부할 시간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참여자 F)

일하면서 솔직히 7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8시, 밥 먹고 나면 9시예요. 씻고 나면 거의 10시 되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책을 볼 힘이 없어요. (참여자 A)

한국사를 너무 몰랐어요. 한국에서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처음에는 저 사극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해도 못 하고, 그 배경을 전혀 모르니까요. (참여자 G)

제가 지금까지 제일 인상 깊은 것이 처음에 딱 들어오니까 ‘원격교육의 이해’라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게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중국에서 방송대를 다녔지만 중국은 시스템이

여기하고 좀 달라요...(중략) 중국에서 공부할 때는 온라인으로 (시험)보는 것이 없었어요. (참여자 I)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은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에 해당하는 여러 변수가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고 변화시키는 조건을 의미한다(박승민 외, 2012; 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에서는 ‘학습과 성장을 추구하는 태도’, ‘한국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고 싶은 마음’, ‘학업적응에 도움이 되는 주변사람들’, ‘불완전하지만 다양한 학교의 학습지원’, ‘원격 대학생활 경험의 축적’,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타 환경’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부하는 것 자체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다. 또한 일반대학으로 진학한 유학생과는 달리, 이들은 한국인과의 결혼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 친구를 만들고 한국에서 취업을 해서 한국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려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 주변에는 원격대학에서 학습한 경험이 있는 친구나 가족, 지인 뿐 아니라 이주민에 호의적인 동료 학생과 교직원도 있었다. 불완전하긴 하지만 문자 발송, 담당튜터 배정, 글로벌장학금 수여 등과 같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가 학생들의 학업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입학식이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거나, 첫 학기가 지나는 등 원격대학생활 경험이 쌓일수록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줄어들었으며, 공부하기 쉬운 전공과 교과목, 컴퓨터 사용 빈도와 용이성 등 기타 환경도 원격대학 학습의 어려움을 조절하는 변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제가 공부를 되게 좋아했어요...(중략) 공부는 하고 싶은데 경제력이 안 되어서 안한 것은 항상 한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F)

제가 일단은 중국에서 이민해서 오다 보니까 친구들도 없고요, 되게 외로웠어요. 특히 다른 분들의 동창 모임 같은 거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입학 했으니까 그런 것도 만들자, 열심히 다녔었어요. (참여자 H)

중문과를 하니깐 그래도 중문과를 4년제 나왔다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내가 중국어 강사 활동을 꾸준히 하는데, 물론 학문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앞으로 취직을 한다거나 조금 더 내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G)

저는 그 때 **지역대만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지역대 갔는데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거리다, 얘기를 하다가 형님이 옆에 **학습관도 있다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대도 한 번 살펴 봐, 거리는 멀지만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선택할 수 있지요. 몰랐어요 진짜, 옆에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모르지요. (참여자 C)

제가 일본학과잖아요. 일본어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주위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많이, 자기가 일본어로 배우니까 많이 챙겨 주고 말도 걸어 주고 하는데, 제가 일본학과가 아니고 다른 학과였으면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참여자 E)

아무 것도 몰랐어요, 스터디 있다는 것도 몰랐고, 오리엔테이션도 몰랐고. 그런데 그때 중어중문과에서 문자 날아왔어요. (참여자 B)

첫 학기 때 보다는 그렇게 많이 묻지는 않았지요, 이제는 웬만큼 아니까. (참여자 G)

저는 무역회사(다니)니까 컴퓨터를 매일 하니가 컴퓨터를 볼 수 있는 거였어요...(중략)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은 꼭 들어갔어요. 월요일에 들어가고 금요일에 한 번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주로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언제 뭐 신청하고 수업이 있고 행사 있고,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거기서 다 알았거든요. (참여자 A)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action)/상호작용(interaction) 전략(strategies)은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상황, 문제, 쟁점을 다루고 대처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인 행위나 습관적인 반응 방식을 말한다(박승민 외, 2012; Strauss & Corbin, 2001).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들이 '원격대학생활의 어려움에 압도됨'이라는 현상을 다루기 위해 사용한 전략이나 습관적 반응 방식은 '포기할까 고민함', '각오를 다짐', '현실과 타협함',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함', '교내 학습지원 제도를 활용함',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함', '정보를 탐색함', '시험위주로 공부함', '공부에 몰입함' 등이 나타났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해 혼자, 그것도 한국어로 된 대학공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압도된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들은, 처음에는 공부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일단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학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학습목표를 현실적 수준으로 낮추는 등 현실적 타협안으로 대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민 학생은 지인이나 주변학우, 교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가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멘토링, 튜터링, 스터디 모임 등과 같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지원제도를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주민 학생들은 학생회 특강이나 학교 행사 등에 참여하였으며, 학교 홈페이지나 온라인 커뮤니티, 학보와 안내책자 등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시험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기출문제만 풀어보거나 남이 만든 요약과 답안을 그저 달달 외우는 식의 시험요령 위주 공부를 하였으나, 점차 자신에게 맞는 학습스타일 대로 나름의 계획을 세운 후, 정기적으로 공부

하면서 자신만의 요약과 답안을 만들었다. 일부 이주민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 예습과 선행 학습을 하기도 하였으며, 나름의 필기전략과 암기전략을 사용해 공부한 학생도 있었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저도 몇 번 포기하고 싶었는데... (참여자 A)

(그런데 어떻게 포기 안 하셨어요?) 자기가 결심해서 이왕 들어간 거니까 안 되도, 되도 해 보겠다고. (참여자 E)

1학기는 제가 등록하자마자 책을 살펴보니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한) 아이에게 안 좋아서 휴학을 했어요. (참여자 C)

교재 보고 나서, 뒤에 한자에 관련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것만 막 했고, 과락만 안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딱 60점이었어요. (참여자 B)

저는 처음에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 K대 다녔다는 그분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분이 수강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학점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과목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그분이 1학년부터 쪽 올라가면서 공부하신 분이어서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참여자 G)

저는 그냥 사방에 전화해서 호소를 했어요...(중략) “다른 분 바꿔주세요. 못 알아듣겠으면 다른 분 바꿔주세요.” 항상 그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또 전화하고. (참여자 C)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지사항, 멘토-멘티, 처음에 저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신청해서라도 그 분에게 여러 가지를 듣고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신청했어요. (참여자 E)

임원을 하려고 손을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임원을 하면 그 모임에 빠질 수 없잖아요, 내가 장이 되어야 하니까. 내가 여기서 안 하면 학교에 나오기 싫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여자 I)

일단 청교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쪽에 공지로 다 나와 있고 하니까. 거의 하루에 한번씩... (참여자 F)

초창기 1학기 때에는 거의 책은 안보고, 시험문제, 기출문제만 여러 번 풀었어요. 모르는 것 또 다시보고 하고, 또 처음에는 제가 K대 공부 강의도 안 들었고, 그냥 혼자 스스로 기출문제 풀어서 책도 안보고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요약 같은 것만 했고...(중략) 머릿속에 남는 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만 풀었으니까, 완전 시험대비예요. (참여자 H)

(동료 한국인 학생이) 저에게 요약한 것 줬거든요. 그래서 달달 외웠어요. 출석시험 그렇게 봤어요. (참여자 E)

저는 기말고사, 거의 시험 전에는 밤새서 공부했어요, 거의 2, 3시간 자면서, 하루에. (그걸 어느 정도 기간을 하셨어요?) 한 3일 동안 빡세게 했어요. 평소에 미리미리 한 달, 두 달 전에 봐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솔직히 정말 없어요. (참여자 A)

저는 일단 계획서를 세워요. 이번 학기 6과목이나 5과목 한다면 강의를 살펴봐요, 몇 강의인지. 강의를 살펴보고 시험 스케줄을 먼저 달력에 써 놓아요. 써 놓고 한 과목 강의가 몇 일 부터 몇 일 까지 끝내야 한다는 생각, 그게 있어요...(중략) 기한을 딱 정해 놓고, 그리고 복습 기간은 얼마고 정해 놓고, 그걸 따라서 가요. (참여자 C)

솔직히 공부하는, 저한테는 방학이 없어요. 시험 끝나면 방학에 2학기 거 미리 책을 구입해서 보고, 반복으로 계속 보고 해요. (참여자 H)

6) 결과

결과(consequences)란 의도되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작용/상호작용이 존재할 경우나, 이러한 행동이 부족할 경우에 나타난 결과물의 총합을 말한다(박승민 외, 2012; 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에서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결과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됨’,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함’, ‘원격대학 학습법을 터득하고 전수함’, ‘한국사회 적응력이 향상됨’, ‘이주민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을 떠나 낯선 한국 땅에서 늘 외로움 속에 있던 이주민 재학생들은 원격대학에서 자신과 동일한 이주민 재학생을 만나 위로를 얻게 되었으며, 이전 경험으로 인해 두렵고 주저되었던 한국인 학생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이들과 친구가 되면서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또한, 원격대학에서 높은 성적을 받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더욱 공부가 좋아져 다른 진로와 학습을 새로이 모색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주민 학생들은 원격대학 학업적응의 결과로 원격대학 학습법을 터득해 다른 이주민에게 전수하였으며,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고 한국문화와 역사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가족과 사회에서 인정받고 직업생활에도 도움을 받음으로써 학습으로 인해 한국사회 적응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일부 이주민 재학생은 한국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모국어와 모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이중 언어자의 강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편견과 선입견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제가 전공으로 말하면 아무래도 중국에서 중국어를 하고 왔으니까, 여기 공부하는 한국 분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물어보면 저는 좀 자신

감 있게 당당하게 내가 아는 것 알려 주고 하니까 서로 좋았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무엇 때문에 좋았을까요?) 항상 한국 분들은 외국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도 내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나도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도와줄 수 있다는 이런 기회가 있구나... (참여자 G)

안 좋은 선입견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못 살았으면 여기 왔겠나... (중략) 어쨌든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만 공부하고 다른 것은 다 신경 안 쓰고 그러다보니 내가 적응도 되고 공부를 해 가면서 시야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하니까 극복할 수 있는, 지금은 다 '너희는 그럴 수 있지, 나는 나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문화 면이든 언어 쪽이든 알게 모르게 일단은 남편이 무시라는 자체, 했다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느끼고 그랬었거든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제가 공부로 인해, 중국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높은 점수도 받고 인정받고 하니까 남편이 우리 와이프는 진짜 훌륭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받았어요, 존경 같은 것. (참여자 H)

책 읽는 속도, 한번 읽게 되면 거의 한 3주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은 거의 1주일에 한 권 다 볼 수 있어요. 속도가 빨라졌고, 이해력도 빨라지고, 공부하고 나면 내 머리 속에 많이 안 남더라도 내가 뭐했지? 그게 뭐지? 주제가 무엇이지? 무슨 과목이지? 그게 내 머리 속에 남았어요. (참여자 H)

저는 한국말 못했잖아요...(중략) 그런데 오히려 제가 더 빨리 (한국말) 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니는 한국어 받은 교재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K대는 대학 교재예요. 그러니까 K대에 만약 처음부터 적응하기 시작하면 한국어 실력 빨리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자 B)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시험대비 위주로 정신적으로 압박감 많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거는 그냥 그런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부하고 책을 보고 나면 뿌듯함도 있고, 정신적으로 만족되고 하니까 자동으로 그냥 좋아지게 되었어요. (참여자 H)

초면이지만, 친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 외국에서 왔으니까, 저는 말로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외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서러움이라고 할까, 외로움이라고 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뿌듯한) 감정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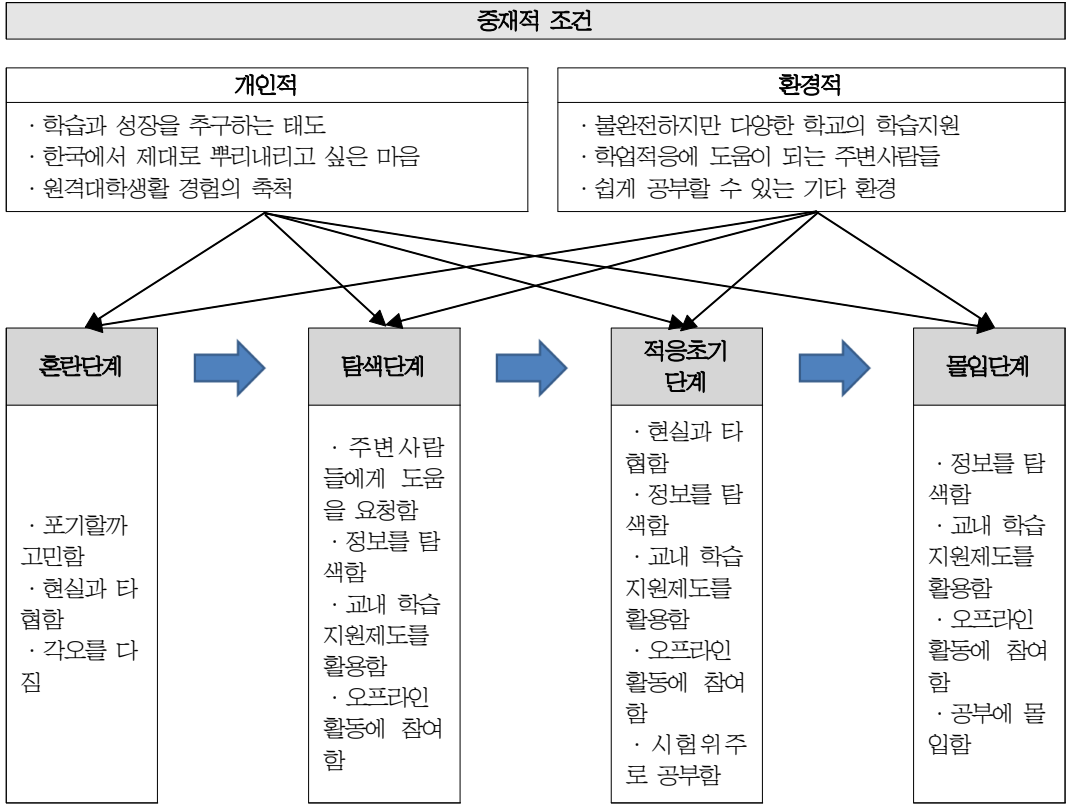
우정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한국인) 친구들 알게 되었고, 지금 졸업을 했더라도 친한 몇 명이 한 달 아니면 두 달, 꼭 모임 하거든요. 그래서 K대 다니면서 얻은 것이 꼭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참여자 I)

내가 졸업하고 되게 뿌듯했어요. ‘내가 이걸 해냈구나...’ 이게 중요했어요, 저는. 그리고 어디 가서 제가 K대 나왔다고 하면 외국 사람은 잘 모르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외국 사람이 나왔으니까, 또 저는 한 학기도 휴학한 것도 없고 쪽 해서 졸업했으니까 ‘참 끈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2.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과정

현상과 관련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순차적 변화를 과정(process)이라고 한다(Strauss & Corbin, 2001). 과정분석이란 자료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표현되는 범주와 하위범주들 간의 연속적 연결을 탐색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황적 변화를 추적하는 단계를 말한다(박승민 외, 2012). 본 연구에서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패러다임을 분석한 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속하는 범주와 하위범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치한 결과, 원격대학의 이주민 재학생들은 혼란, 탐색, 적응초기, 몰입 단계 즉, 4단계의 학업적응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혼란’ 단계는 원격대학 생활의 어려움에 압도된 이주민 재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할까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휴학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왕 들어왔으니 열심히 한 번 해 보자.”며 스스로 각오를 다지기도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탐색’ 단계는 이주민 재학생들이 “타치는 대로 전화”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이주민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학습지원 제도를 신청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구체적 요구에 맞지 않아 실망하는 등 자신만의 학습스타일이 필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셋째, ‘적응초기’ 단계는 이주민 재학생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보다는 학사일정을 따라가는데 급급한 형식적 적응기라고 할 수 있다. 이주민들은 이 단계에서 출석수업이나 스터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한국인 학생이 작성한 요약내용과 기출문제만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험요령을 습득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이주민 재학생들은 “교과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답안을 외우는 시험위주 학습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나름의 필기 및 암기 전략, 베타치기 등 다양한 학습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마지막은 ‘몰입’ 단계로, 이주민 재학생이 높은 성적으로 학업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공부에 좋아져 더 공부에 힘쓰게 되는 선순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이주민 재학생들은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요약과 답안을 작성하고, 연습과 선행학습을 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 단계에서는 학업성취 경험이 가정이나 사회생활, 이주민 정체감 등에도 변화를 가져오면서 학업의 영향력과 유익함이 한국에서의 일상생활로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더욱 공부에 몰입하거나 새로운 진로나 학습을 모색하여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림 2]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과정

모든 중재적 조건이 학업적응 과정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원격대학 이주민 재학생의 학업적응 과정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원격대학에 입학한 이주민 학생들의 학업적응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글로벌장학금을 받아 원격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고 판단되는 이주민 재학생 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였고, 근거이론 방법과 절차에 따라 면접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대학에 입학한 이주민 학생들이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원격대학생활의 어려움에 압도됨’이었으며, 원격대학 이주민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정서적 고통의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기본적인 학사일정과 수업내용을 따라가기조차 힘들어 하였으며, 한국

어로 된 학습 양과 수준에 놀라고 겁이 나,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하나...' 하는 두려움과 걱정, 막막함 등을 경험하였다. 한국인 학생이라면 이러한 어려움과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였을 때 주변사람이나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보다 쉬웠겠지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무시와 배척을 경험했던 이주민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정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나 동료 학생 등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울리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원격대학에 입학한 이주민 학생의 학업적응을 위한 상담 뿐 아니라 정서적, 대인관계적 고통을 완화시키는 심리상담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인 유학생 정신건강 척도를 개발한 오혜영 등(2017)의 연구와 북한이탈주민의 상담요구를 분석한 김성희와 김현아(2005)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원격대학에 입학한 이주민 학생들이 '원격대학생활의 어려움에 압도됨'이라는 중심현상을 경험하는 이유인 인과적 조건은 '대학교육을 받기에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함', '한국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 만 아니라 맥락적 조건에 해당하는 '다중역할 병행', '낮선 한국의 문화와 역사', '출신민족과 출신국에서의 이전 교육경험' 등은 이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을 고려할 때, 학교 차원의 다양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먼저, 국내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한국어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구자들(장민정 외, 2018)은 대학 강의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반적 듣기와는 다른, 학문적 듣기가 요구되는 독특한 영역임을 주장하면서 이주민을 위한 학문적 듣기 수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수정(2011)과 홍승아(2018)의 연구에 의하면,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야만 입학이 가능한 일반대학의 외국인유학생들조차, 대학입학 이전에 배웠던 일상적 대화나 문법위주의 쓰기교육이 아닌, 보고서 작성과 같이 대학교육에서 필요한 논리적, 학술적 글쓰기 연습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조선족이거나 조선족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입학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글쓰기는 원격대학으로 진학한 이주민 학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 따라서 교육취약계층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개방대학 체제로 운영되는 원격대학이라 할지라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이주민 학생을 위한 예비대학 과정' 등과 같은 비학위 과정을 사전에 운영하여 이주민 학생들이 대학교육에 적합한 한국어 능력을 사전에 갖추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전 비학위 과정에는 이주민들이 낯설어 하는 한국역사나 문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세계사 등과 관련된 과목을 포함시킴으로써, 원격대학에서 교양교과목을 수강할 때 어려움을 덜 경험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김성수 외, 2014)도 일반대학에서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하는 '유학생을 위한 기초교양강좌'에 글쓰기 교육 뿐 아니라, 유학생을 위한 문화 간 의사소통교육 즉, '외국인을 위한 한국역사와 문화', '살아있는 한국문화', '한국문화의 이해' 등

의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소개하면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유학생에게 주류문화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관점으로 주류 문화를 해석하고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셋째, 원격대학에 입학한 우수 이주민 학생들이 ‘원격대학생활의 어려움에 압도됨’이라는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선택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살펴보면, 이들이 매우 주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도성은 아동이나 청소년 등 학령층 학생과는 구별되는, 평생학습을 추구하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두드러지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김현아, 이자영, 2014), 학습상황에서 자기주도성은 교수자나 관리감독자가 없어도 스스로 학습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는 능력을 말한다(김요완, 박종선, 전광호, 2013). 특히, 원격·사이버교육 환경에서 주도성은 단순히 ‘혼자 학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자신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적극 발굴·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기제”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이의길, 2013), 연구자들(홍성연, 2009; Madernach, Donnelly, & Dailey-Hebert, 2006)이 분석한 성공적 원격학습자 역량에는 학업비전 설정, 자기동기화 등과 같은 인지적 역량과 함께 협력적 관계형성 역량, 학습자원관리 역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격대학의 우수 이주민 학생인 본 연구 참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원격대학생활의 어려움에 압도됨’이라는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에는 ‘포기할까 고민함’, ‘각오를 다짐’, ‘현실과 타협함’ 등과 같은 인지적 전략 외에,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함’, ‘교내 학습지원 제도를 활용함’,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함’, ‘정보를 탐색함’ 등과 같이 온·오프라인 상의 관계형성으로 가능한 전략과, 자기조절 학습전략과 관련된 ‘시험위주로 공부함’, ‘공부에 몰입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원격대학에 입학하는 이주민 학생들에게 원격대학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를 알려 줄 수 있는 좋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페러다임 모형에서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이 중심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는 요인이 되는 중재적 조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중재적 조건은 개인적, 환경적 조건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개인적 조건에는 ‘학습과 성장을 추구하는 태도’, ‘한국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고 싶은 마음’, ‘원격대학생활 경험의 축척’ 등이 포함되며, 환경적 조건에는 ‘학업적응에 도움이 되는 주변사람들’, ‘불완전하지만 다양한 학교의 학습지원’,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타 환경’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국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고 싶은 마음’ 즉, 한국 친구를 사귀며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자녀를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은 이주민들의 원격대학 진학 동기이자(은혜경, 정혜령, 2012), ‘원격대학생활의 어려움에 압도됨’이라는 중심현상을 경감시키는 주요 요인도 되기 때문에, 이주민 학생들에게 원격대학 학업적응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학습동기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격대학생활 경험

의 축적'을 위해 다중역할 등을 수행하느라 입학식이나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주민 학생을 위한 온라인 입학식,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혹은, 자국어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별도 운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첫 학기를 마치면 두 번째 학기부터는 어려움의 정도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 이주민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첫 학기에 겪는 어려움을 버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직원이나 동료학생 등 이주민 학생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학업적응에 도움을 주는 환경적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원격대학 교직원이나 일반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인식교육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염미경, 2012; 이수정, 이철현, 2012)에 의하면, 다문화 관련 교양교과목을 이수한 대학생이나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교관리자 및 행정직원들은 다문화나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고, 다문화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원격대학 이주민 학생의 학업적응 결과로 분석된 범주 즉,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됨',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함', '원격대학 학습법을 터득하고 전수함', '한국사회 적응력이 향상됨', 이주민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함' 등은 원격대학교육이 이주민에게 단순히 높은 성적을 얻거나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도구적 학습이 아닌 삶의 전반 즉,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사회와 한국인 등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는 전환적 학습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Mezirow(1991)는 이러한 전환적 학습이 이성을 활용한 반성적 성찰과 토론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지만, 이후 연구자들은 공동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박경호, 2009에서 재인용). 본 연구 참여자들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학업을 계속하기로 스스로 결심하기도 하였지만, 온·오프라인을 통한 상호작용 즉, 대인간 신뢰, 칭찬, 우정 등을 경험하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더 이상 도움만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한국인과 이주민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전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이 이주민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문화 정책의 효과가 이주민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호호혜적, 생산적 다문화 사회 구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김이선 등(201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주민을 위한 원격대학교육은 생산적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김이선 등(2010)은 생산적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해 이주민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생산적 다양성(productive diversity)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섯째, 원격대학에 입학한 이주민 학생들의 학업적응 과정은 혼란, 탐색, 적응초기, 몰입 이

렇게 4단계로 분석되었다. 이 과정에는 선행연구(강희숙, 김동선, 문영주, 2010; 김애진, 정원철, 2011; 김현주, 유성경, 2008; Major, 2005; Quan et al., 2016)에서 살펴본 일반대학·대학원으로 진학한 유학생이나 외국의 중고등학교로 유학 간 청소년들의 학업적응 과정과 동일하게, 학습자들이 학업적 어려움에 압도되어 '쇼크(shock)'라고 말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혼란 단계가 들어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원격대학 이주민 학생들의 학업적응 과정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아보고 직접 모임에 참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탐색 단계와, 학습의 내용은 몰라도 모방과 암기를 통해 과제물 제출, 시험 같은 학사일정을 소화하는 형식적 적응기 즉, 적응초기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탐색과 적응초기 단계가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은 원격대학의 이주민 학생들이 이미 스스로 이주를 감행하여 낯선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을 정도로 매우 주도적인 성인학습자이기 때문이며, 수많은 학생으로 인해 객관식 시험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질 밖에 없는 원격대학 특성 때문이다. 또한, 각 학업적응 단계에서 학습자-자료,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수자 간 상호작용이 온라인으로도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점도 일반대학으로 진학한 유학생이나 청소년 이주민의 학업적응 과정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원격대학에 입학한 이주민 학생들의 학업적응 패러다임과 과정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 참여자 표집과 관련하여 출신국, 출신민족, 전공 등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이주민 학생들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주민 학생들의 출신국이나 출신민족, 전공 등에 따라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학업적응 과정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이들 특성별 학업적응 과정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연구는 특정 학기에 글로벌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졸업 여부나 등록학기 수, 대학생활만족도, 글로벌장학금 수혜 횟수 등 학업적응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를 활용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학업적응에 대한 다양한 지표와 기준을 적용한다면 연구대상이 달라져 연구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원격대학에서 글로벌장학금을 받은 우수 이주민 학생들의 학업적응 과정만을 분석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원격대학 이주민 학생들의 학업적응 과정과 학업적응 촉진요인을 명확히 탐색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 사례 즉, 원격대학에 부적응하여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낮은 성적을 받은 이주민 학생들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여 연구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숙, 김동선, 문영주(2010). 나홀로 조기유학생의 유학적응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2(3), 119-142.
- 공운정, 이은주(2014). 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대학생의 진로적응과정. **상담학연구**, 15(5), 1771-1789.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1). 2011 간추린 교육통계. <http://cesi.kedi.re.kr/publ/view?survSeq=2011&publSeq=3&menuSeq=0&itemCode=02&language=#>에서 2018, 9, 17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간추린 교육통계. <http://cesi.kedi.re.kr/publ/view?survSeq=2017&publSeq=3&menuSeq=0&itemCode=02&language=#>에서 2018, 7, 23 인출.
- 김대현, 김아영, 강이화(2007).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학업적응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8(3), 159-187.
- 김미강(2018).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이 한국어 숙달도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언어학**, 70, 29-57.
- 김성희, 김현아(2005). 새터민의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도움요청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6(3), 693-712.
- 김애진, 정원철(2011).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차이와 차별을 넘어 융화되기. **학교사회복지**, 21, 217-242.
- 김영경(2009). 중국, 일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요구 분석. **상담학연구**, 10(1), 535-559.
- 김요완, 박종선, 전광호(2013).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학습성과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의 매개역할.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4), 743-764.
- 김이선, 정해숙, 이정덕(2010).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V):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지훈(2014). 서울 A대학 동남아시아 유학생의 학업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3(3), 135-179.
- 김현아(2010). 새터민의 남한 사이버 교육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1(2), 57-92
- 김현아, 이자영(2014). 사이버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486-496.
- 김현주, 유성경(2008). 미국 조기유학 청소년의 적응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9(2), 615-644.
- 김현진, 김영주(2014).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전략과 사회적 거리감이 학업성취도에 미

- 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30(2), 127-154.
- 남신동, 정영숙, 황지원, 정연희(2013). **방송대생 학업지속률 제고를 위한 학업중단경험의 제 유형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 박경호(2009). 전환학습이론: 고등교육기관에서 중년여성학습자의 의미구조의 변화. *Andragogy Today*, 12(4), 31-60.
- 박범혁(2006).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박세원(2012).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박성원, 신동일(2014).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공동체 참여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7(1), 103-158.
- 박승민, 김광수, 방기연, 오영희, 임은미(2012).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한 상담연구과정**. 서울: 학지사.
- 박우(2009). 재한 중국 유학생의 이주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족, 조선족 유학생 비교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19, 155-181.
- 박은미, 황빙의, 정태연(2010).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205-223.
- 서선자, 금명자(2012). 재한 일본 유학생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인간이해*, 33(1), 35-47.
- 염미경(2012). 대학 다문화교육과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이해 관련 교양 강좌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2(1), 211-233.
- 오혜영, 안하얀, 백상은(2017). 중국인 유학생 정신건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8(6), 473-497.
- 은혜경(2015). 원격대학 다문화멘토링 참여경험 분석: 멘토의 경험과 요구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1(1), 89-113.
- 은혜경(2018). 다문화사회의 진정한 리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다문화협의회 워크숍**, 8월 11일.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 본관.
- 은혜경, 정혜령(2012). **방송대 다문화멘토링 모형 개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 이민경(2012).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동기: A대학 아시아 유학생들의 한국유학 선택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8(2), 177-201.
- 이수정(2011). 중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경험에 대한 FGI 연구. *인문연구*, 63, 91-120.
- 이수정, 이철현(2012). 학교 관리자의 다문화 및 다문화교육 인식 조사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5(1), 69-92.
- 이의길(2013). 온라인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수준과 사회적 실재감이 학습결과에 미치는

- 영향. **평생교육학연구**, 19(4), 27-50.
- 장민정, 홍은실, 유하라, 현원숙, 오문경, 김경원(2018).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에 대한 대학 유학생의 요구와 인식 연구. **문화와 융합**, 40(1), 263-290.
- 전향신(2018). 대학생의 성장 마인드셋, 그릿, 내재적 미래지향목표 및 학업적응 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정남조(2010).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 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정혜령, 노일경, 양창렬(2011). **다문화 사회를 위한 방송대 대응전략 방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 조한익, 이성원(2013). 사이버대학교 신입생의 삶의 만족도와 학업적응 요인의 관계에서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평생교육학연구**, 19(1), 85-112.
- 최금해(2008). 제한 중국 유학생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1), 115-138.
- 최은희, 조영아(2014). 몽골 출신 대학원 유학생의 대학생활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7, 309-353.
- 하정희(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
- 행정안전부(2007). 2007년도 외국인주민 현황. http://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4&nttId=19611에서 2018, 9, 15 인출.
- 행정안전부(2017).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발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0494에서 2018, 7, 16 인출.
- 홍성연(2009). 원격대학 우수 학습자 역량 모형 개발. **교육공학연구**, 25(4), 157-186.
- 홍승아(2018). 한국 유학 대학생들의 학문적 요약문 글쓰기: 한국인 대학생과의 비교를 통한 실태 분석. **한국언어문화학**, 15(1), 257-283.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Barratt, M. F., & Huba, M. E. (1994). Factors related to international undergraduate students adjustment in an American community. *College Student Journal*, 28, 422-435.
- Chen, C. P. (1999). Common Stressors Among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Research and Counseling Implication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2(1), 49-65.
- Cres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2nd ed)]**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

지사.

- Hawkridge, D. (2003). The human in the machine: Reflections on mentoring at the British Open University. *Mentoring & Tutoring: Partnership in Learning*, 11(1), 15-24.
- Lee, J., & Rice, C. (2007). Welcome to America? International student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Higher Education*, 53(3), 381-409.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Inc.
- Lowinger, R., He, Z., Lin, M., & Chang, M. (2014). The impact of academic self-efficacy, acculturation difficulties, and language abilities on procrastination behavior i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1(1), 141-152.
- Martirosyan, N. M., Hwang, E., & Wanjohi, R. (2015). Impact of english proficiency on academic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5(1) 60-71.
- Mandernach, B. J., Donnelly, E., & Dailey-Hebert, A. (2006). Learner attribute research juxtaposed with online instructor experience: Predictors of success in the accelerated, online classroom. *Journal of Education Online*, 3(2), 1-17.
- Major, E. M. (2005). Co-national support, cultural therapy. and the adjustment of asian students to an english-speaking university culture. *International Education Journal*, 6(1), 84-95.
- Msengi, I. G. (2007). Sources of stress and its impact on health behaviors and academic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a comprehensive Midwestern Un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Global Health and Health Disparities*, 5(1), 55-69.
- Poyrazli, S., & Kavanaugh, P. R. (2006). Marital status, ethnicity, academic achievement, and adjustment strains: The case of graduate international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40(4), 767-780.
- Quan, R., He, X., & Sloan, D. (2016). Examining chinese postgraduate students' academic adjustment in the UK higher education sector: A process-based stage model.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21(3), 326-343.
- Roberts, R., Towell, T., & Weinreb, I. (1999). The effects of economic circumstances on British students' mental and physical health.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8(3), 103-109.
- Strauss, A., & Corbin, J. (2001). **질적연구 근거이론의 단계**[*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2nd ed)*]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 Truluck, J. (2007). Establishing a mentoring plan for improving retention in online graduate degree programs. *Online Journal of Distance Learning Administration*, 10(1), Retrieved July 1, 2018, from <http://www.westga.edu>
- Zhou, Y., Frey, C., & Bang, H. (2011).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academic adaptation to a U.S. graduate school. *International Education: Knoxville*, 41(1), 76-94.

* 논문접수 2018년 8월 2일 / 1차 심사 2018년 9월 7일 / 게재승인 2018년 9월 18일

* 은혜경: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진로, 다문화, 상담 슈퍼비전 등이다.

* E-mail: graceeeun0318@knou.ac.kr

Abstract

Analysis on Process of Academic Adjustment of Immigrant Students in Open and Distance University*

Eun, Hea K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rocess of academic adjustment of immigrant students who enter distance university. In order to carry on this study, 9 immigrant students who were granted scholarship after entrance to the K distance university were interviewed and the result of the interview was analyzed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Firstly, open coding was conducted and 28 upper levels were categorized then the academic adjustment paradigm modeling of those immigrant student was constructed by processing axial coding, which establishes the relationship among upper categories. It means central phenomenon of the immigrant students during they were on the process of academic adjustment is interpreted as 'overwhelming due to academic difficulties in distance university' and casual condition directly affects to the central phenomenon is 'due to lack of Korean language skills to learn university level education' and 'fears of having relationship with native Koreans'

Actional/interactional strategies towards the central phenomenon are categorized as 'considering leave halfway through', 'resolute', 'compromise with the reality', 'ask help to others', 'utilize supporting programme in university', 'participate in off-line activity', 'search information', 'study for only exams', and 'concentrate on studying'.

The responded as a result of the academic adjustment saying 'realize I am not alone', 'experience the pleasure of studying', 'know how to do distance learning and let others know', 'positively re-establish immigrants' identity' and the overall process of immigrant students was characterized by 'confusion-exploring-initial stage of adjustment-concentration stage' levels. Lastly, implication, limitation and proposal for further studies are addressed.

Key words: distance learning university, multicultural immigrants, academic adjustment, grounded theory, paradigm modeling, process analysis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in 2012.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Distance Educatio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